

기술·가정 교과에 기초한 노년기 주생활 계획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조사

이 승 진, 최 병 숙†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전북대학교 아동·주거전공 조교수

A Survey on the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about the Elderly Housing Life Plan from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Seung-jin Lee, Byung-sook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Univ.

Dept. of Child & Housing Environment, Chon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about their future in old aged housing. This research was executed with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Data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55 students who finished first grade curriculum in high schools in Chonbuk province and Seoul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a healthcare plan was very highly recognized by students, and they wanted to live as couples or single in their old age. Second, the respondent students recognized elderly housing as a home for the aged, a silver town and nursing home. 72.1%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a single detached house as an elderly house form. They preferred an elderly housing district with well provided convenient facilities for daily living. They wanted to live in the country or rest areas for the aged. They preferred an interior space composition with LDK with 2 bedrooms. 52.0% students wanted a neighborhood for their friends to live together. Third, 28.3% of the respondent students thought the appropriate time to move in elderly exclusive housing was 66-70 years old. And when their physical condition worsened or they needed care, they would want to move into that housing. Also, they wanted the most convenient facility and a medical care facility in elderly exclusive housing. Forth, students' space design needs for elderly were high, more than 4 points. It was especially needed safety in space design, and this grade was 4.56(.53) points. Also the needs of safety and the convenient facilities·equipm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boys and girls.

Key words: adolescents, housing consciousness, elderly housing, housing life plan.

† Corresponding author, Tel: 063-270-3840, E-mail: housecbs@chonbuk.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점차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의 비율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경에는 그 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1).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은퇴의 시기는 일정한 반면에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기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인으로써 노년기를 맞이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이해가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다. 생애주기 중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더 나아가 폭넓은 인생 전반에 관한 삶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노년기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가정생활주기 변화에 따른 가정생활설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의식주 분야의 내용 중 노인의 특성에 맞게 노년기 주생활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식이 청소년에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년기 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김경애 2004; 김순연 2003; 김영혜 2002; 김옥만 2004; 김유정 2003; 문희정 2003; 박성효 2004; 안명숙 2004; 유병선, 홍형옥 2005; 조남규 2004)에서는 대부분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도 노인주거 및 시설에 대한 의식,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생활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년기를 이해하기 위한 생활 의식 및 주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에서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사회적인 위치가 노인의 부양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자신들도 노년기의 생활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각에서도 노년기를 이

해할 수 있는 의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학습하는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청소년의 생각을 기초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노년기 주생활 계획에 관한 의식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체가 될 현재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 노후에 대한 생활 및 노후 주거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년기 생활계획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본다. 둘째, 노년기 주거계획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본다. 셋째, 노인전용주거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본다. 넷째, 노인을 배려한 주거계획요소의 필요도를 알아본다. 그리고 나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노후대비 생활설계의 교육적 방향을 탐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 주생활 관련 연구

1) 노년기 가족관계 계획

30~60대층 대상을 중심으로 노년기 주생활 관련 가족관계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노부모와 생활의 불편함(32.0%)으로 별거를 선호하였고(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중·장년층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48.0%) (조남규 2004)라는 의식이 높았다.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42.0%)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다(김순연 2003). 그리고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고 부부 또는 혼자생활(76.6%)을 희망하였다(김유정 2003). 노년기 경제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는 저축을 선호한 비율이 약 46.6%~59.3%였다(김경애 2004; 김순연 2003; 김유정 2003). 그리고 공적연금을 선호하는 비율이 58.6%(김순연 2003)이었고, 그 외 보험금, 퇴직금을 선호하였다(김유정 2003). 노년기 취미 및 여가생활 계획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친구나 친지방문, 여자의 경우 봉사활동, 집안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하는 취미활동으로 운동 및 등산(42.7%), 여행(34.5%)(박성효 2004), 스포츠 및 등산을 선호(33.7%)하였다.(김순연 2003).

2) 노년기 주거계획의 의식

노년기 주거계획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72.8%) 실버타운을 인지하고 있었다(89.5%)(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또 40~50대 중년층이 노후에 계획된 주거시설로의 이사계획을 갖고 있거나 생각(36.7%)하고 있었다(김유정, 2003). 그리고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유병선, 홍형욱 2005)에서는 노인공동생활주택 입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노년기 주거 생활에 대한 의식으로 노후에 선호하는 생활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에서 자녀와 동거 하겠다'가 많았고, '자녀주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51.1%)고 조사되었다(박성호 2004).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정부(39.3%)가 국민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인식하였다(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그리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참여를 검토하여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안명숙 2004). 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주체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를 월등히 선호(54.6%)하였다(조남규 2004). 시설의 개발 보급주체로 정부와 민간기업을 선호(46.0%)하였다(김순연 2003). 노년기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 유형(46.8%)을 선호하였거나, 전원주택(52.1%)을 선호하였다(김유정 2003; 박성호 2004; 안명숙 2004; 김순연 2003). 주거지 조건으로 '변생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장 선호하였고 '대중교통과 편리성',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호하였다(김순연 2003; 유병선, 홍형욱 2005).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도시근교(교외)부근을 아파트의 경우는 도심지를 선호하였다(김유정 2003). 도시근교와 전원휴양지(안명숙 2004), 해양 전원휴양지를 선호(56.6%)하였다(김경애 2004).

3) 노인 공동주거 및 전용주거

노인 공동주거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우 원룸형 주거공간 구성을 선호하였고(홍형욱, 지은영 2004), 2인 1실 형태와 16~20평이 적당하다고 지적하였다(김순연 2003). 그리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경우 20~30평 미만(김경애 2004; 김유정 2003), 1인실인 경우 11~15평 선호(34.2%), 2인실인 경우 16~20평(32.1%)을 선호하였다(김옥만 2004). 노인이 되어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웃으로 종교가 같은 사람

(53.0%), 친목활동(22.9%), 경제수준 직업이 비슷한 사람(19.3%)으로 지적하였다(김영혜 2002).

노인전용주거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려는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이 필요할 때 입주하겠다.'(29.0%)이었고(조남규 2004), '건강이 나빠져 누군가의 부양이 필요할 때(42.6%)'이었다(김옥만 2004). 구체적인 입주시기로는 66~70세 정도를 제시하였고(김순연 2003), 연령이 많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시설입주를 고려하겠다고 하였다(조남규 2004).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소유방식으로 임대보다는 종신이용권(38.2%)(김경애 2004), 임대방식(40.1%)(안명숙 2004), 전세임대형(48.4%)(김옥만 2004)을 선호하였다. 노인전용주거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복합 주거공간(의료시설 및 노인전용시설, 가족시설, 여가시설, 지역 문화공간)을 선호하였다(김경애 2004). 김옥만(2004)은 의료시설의 필요성(63.2%)에 대해 높은 선호도가 조사되었다. 그 외 운동시설로 게이트볼장(36.3%), 텃밭(주말농장)과 옥외 서비스 공간(56.2%)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박성호 2004).

4) 노인의 주거환경 요구

노인의 주거환경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동용이성(3.45점), 생리적 유지(3.74점), 지각적 유지(3.45점), 사회적 용이성(3.55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주거환경 내용에서는 '비상벨 설치(3.79점)', '미끄럼 방지 바닥재(4.01점)', '집안 내 불필요한 단차나 경사제거(3.69점)', '보다 넓은 공간(3.30점)',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3.69점)', '욕조 안전손잡이 설치(3.68점)', '부엌 작업대 높이조절(3.53점)', '난방 및 습도조절 시설 계획(3.64점)', '충분한 조명(3.57점)', '욕실의 조명(3.52점)', '방음시설(3.53점)'을 요구하였다(문희정, 2003).

이상에서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년기 주생활 계획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 연구내용은 노후경제 대책 및 건강, 취미활동과 노후 부양대책에 관한 노년기 생활 계획의 의식과 노후 주거계획 및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의식을 다룬 노년기 주거 계획에 대한 의식이었다.

〈표 1〉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설문 항목	내 용		비고
일반 사항 (6문항)	개인사항	성별, 출생순위, 연령, 결혼의사	선행연구
	가족사항	조부모 동거여부, 주택유형	선행연구
노년기 생활 계획 의식 (6문항)	6대 계획과제	가족관계, 사망대비, 경제대비, 건강관리, 여가계획, 주거대비	교과서
	가족관계	부모-자녀 동거의사, 동거 시 불편한 점	교과서/선행연구
	경제대비	경제적 대비 방법	교과서
	건강 및 취미여가	운동 및 산책, 봉사활동, 종교 활동, 집안일, 모임활동, 여행, 예술 활동, 독서, 연구 및 영화감상, 컴퓨터 사용	교과서/선행연구
노년기 주거 계획 의식 (8문항)	노인전용 주거인식	노인을 위한 주거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노후주거 생활의식	노인이 되었을 때 주거유형, 주거문제 해결주제	교과서/선행연구
	노후주거 선택의식	주택유형, 거주지 조건, 주거 위치, 주거 공간, 살고 싶은 이웃	교과서/선행연구
노인전용주거 의식(5문항)	입소관련 사항	거주이유, 입주연령 및 시기, 입주하는 경우, 비용부담	선행연구
	공간 필요도	편의, 교육 및 문화, 운동, 취미, 공원, 쇼핑, 의료	선행연구
노인 배려 주거 계획 요소 필요도 (13문항)	안전관련 사항	긴급통보장치, 생활안전장치	교과서/선행연구
	편리한 시설·설비	경사로, 문턱, 욕실 및 화장실, 가구	교과서/선행연구
	실내 환경	냉난방, 빛, 공기, 소음	선행연구
	유지 관리	관리비, 청소	선행연구

2. 청소년의 주거의식 관련 연구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는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의식조사연구와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 및 영역성에 관한 연구로 크게 구분되었다.

주생활 단원에 관한 의식 중 남·여학생간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내용의 인식에 있어서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내용들이 있었다(신용해, 조재순 1999; 이강분, 최목화 1994). 주생활 단원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남녀 학생간의 유의도 검증에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주거발달, 주택설계의 새로운 방향, 급·배수전기가스난방설비, 평면 계획, 주거공간계획, 주거 위생과 실비 영역의 필요도는 남학생이, 주생활용품 만들기, 가구선택, 가구 배치, 주거 공간 계획, 주거 환경 미화영역의 필요도는 여학생의 요구도가 더 높았다.

청소년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다고 하였지만(김순경, 김종인 1986), 기숙사 단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영역성 지각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은 영역성을 지각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더욱 긍정적으로 영역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진선, 양세화 2002).

이와 같이 청소년 주거의식은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

인식 및 기숙사 단위공간의 프라이버시, 영역성 측면에서 남녀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지 작성 및 측정방법

설문의 항목 및 내용은 기존 선행연구(김경애 2004; 김순연 2003; 김영혜 2002; 김옥만 2004; 김유정 2003; 문희정 2003; 박성호 2004; 안명숙 2004; 유병선, 홍형욱 2005; 조남규 2004)를 검토한 결과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내용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미래 노년기 주생활에 관한 1차 설문내용을 연구자가 구성하였고, 전문가 7인(교수 2인, 대학원생 5인)에게 내용적 검토를 검증받은 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은 〈표 1〉과 같이 일반사항(6문항), 노년기 생활계획의식(6문항)¹⁾, 노년기 주거계획의식(8문

1) 노후생활에 관한 6대 계획과제 중 가족관계 계획과제, 경제대비 계획과제, 취미 및 여가에 대한 계획과제, 주거 계획과제의 네 가지 영역을 하부영역으로 분류 구성하였다. 사망대비계획과제는 학생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미숙하기 때문에 하부영역에 제외시켰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과제는 운동, 등산, 산책 등으로 취미 및 여가 계획과제, 주거계획과제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항), 노인전용주거의식(5문항), 노인배려 주거계획요소 필요도(13문항)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응답방식은 폐쇄형으로 하였으며, 일부 응답사항이 기타인 경우 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개방형 자유응답을 하도록 병행하였다. 그리고 질문항목 중 노인전용주거의식의 서비스 공간 필요도와 노인배려 주거계획요소의 필요도 항목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8$ 로 파악되었고, Cronbach's α 값이 .60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를 이수한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대상의 범위로 하였다. 학생 선정은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조사협조가 가능한 전북지역과 서울지역으로 하였으며, 남녀학생을 고려하여 남학교와 여학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북지역에서 1개 고등학교와 서울지역 2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전북지역과 서울지역의 선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협조가 용이한 반을 추출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교 1개교의 2개 반의 전원 70명, 여자고등학교 1개교의 2개 반의 전원 70명, 전북에 위치한 남녀공학의 고등학교 1개교의 4개 반의 전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2월 12일에서 12월 22일까지(11일간) 실시하였다. 학년 말을 조사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의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 2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6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25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남녀학생 의식의 차이는 t-검증과 chi-square 검증으로 파악하였다²⁾.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일반사항

1) 개인사항

조사 학생의 개인적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3.9%(112명)이었고 여학생이 56.1%(143명)이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7.8%(21명) 더 많이 표집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출생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첫째로 태어난 경우가 62.0%(158명), 둘째로 태어난 경우가 33.3%(85명)이었고, 셋째, 넷째 혹은 무남독녀로 태어난 기타의 경우가 4.7%(12명)이었다. 조사 학생들이 첫째로 태어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둘째와 비교하면 약 2배 정도로 많았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조사 학생 전체의 평균 연령은 17.05세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17.44세, 여학생의 경우는 16.74세로 남학생의 나이가 여학생보다 0.7세 더 높았다. 조사대상 학생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7세 전후로 나이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학생의 개인사항

항 목	구 분	빈도	%
성 별	남 학생	112	43.9
	여 학생	143	56.1
출생순위	첫 째	158	62.0
	둘 째	85	33.3
	기 타	12	4.7
		평균(M)	표준편차(SD)
연 령	남 학생	17.44	.938
	여 학생	16.74	1.073
	평 균	17.05	1.071

2) 학생의 결혼에 대한 의사

노인주거와 관련된 노후생활은 가정생활설계의 일부 분이고, 가정생활설계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때 결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노후생활

2) 예비조사 결과 노년기 주생활 계획에 관한 학생들의 의식이 지역 및 학생의 개인/가족사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 자료의 1차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논문의 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타난 남녀학생의 분석 결과 이의 부분은 제외하였다.

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설계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앞으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조사한 결과<표 3>,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결혼을 할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학생의 70.6%(180명)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10.2%(26명) 학생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결혼 의사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19.2%(49명)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결혼계획에 대해 명확한 의사가 없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무응답 학생의 조사결과는 조사학생의 최대 약 30% 정도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토로 변화되어 가는 일부 청소년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3> 조사학생의 결혼의사

단위: 빈도(%)

항 목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결 혼 의 사	있 다	180(70.6)	76(67.9)	104(72.7)
	없 다	26(10.2)	5(4.5)	21(14.7)
	무응답	49(19.2)	31(27.7)	18(12.6)
	계	255(100.0)	112(100.0)	143(100.0)

남학생과 여학생의 결혼에 대한 의사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67.9%(76명)는 결혼할 의사가 있고, 4.4%(5명)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7.8%(31명)이 아직 결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72.7%(104명)은 결혼할 의사가 있고, 14.7%(21명)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6%(18명)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남학생에 비해 결혼할 의사와 결혼하지 않을 의사 모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3) 학생의 조부모 동거여부와 주택의 유형

학생들이 현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4%(24명), 함께 살고 있는 않는 경우가 90.6%(2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학생 대부분은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형태에 살고 있었다. 현재 학생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19.6%(50명)이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65.9%(168명)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조사학생의 조부모 동거여부와 주택유형

항 목	구 분	빈 도	%	비 고
조부모 동거 여부	동 거	24	9.4	
	비동거	231	90.6	
주택 유형	단독주택	50	19.6	
	연립주택	36	14.1	
	아 파 트	168	65.9	
	기 타	1	0.4	오피스텔

2. 노년기 생활계획에 대한 인식

1) 노년기 생활의 6대 계획과제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 미래의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생활설계를 교과서에서 학습하고 있고, 그 내용은 노인이 되기 전 준비해야 할 계획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즉, 가족관계에 대한 준비, 사망대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해진 건강관리,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 계획의 6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6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이 인식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로 건강관리 계획에 대해 전체 학생의 77.1%가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여가계획 42.3%, 가족관계계획 33.1%, 주거대비 계획 31.4%, 경제대비계획 10.5%, 사망대비계획 5.7%의 순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후생활 계획과제로 여가계획과 가족관계 계획의 인식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주거대비계획의 인식비율이 높았다.

<표 5> 노년기 생활 6대 계획과제 인식

단위: 빈도(%)

계획 과제 내용	계	남학생	여학생
가족관계계획	76(33.1)	36(35.0)	40(31.6)
사망대비계획	13(5.7)	9(8.7)	4(3.2)
경제대비계획	24(10.5)	13(12.6)	11(8.7)
건강관리계획	177(77.1)	73(70.9)	104(82.2)
주거대비계획	72(31.4)	28(27.2)	44(34.8)
여 가 계 획	97(42.3)	47(45.6)	50(39.5)
계	459(200%)	206(200%)	253(200%)

〈표 6〉 부모 및 자녀와의 동거의향

단위: 빈도(%)

동거의향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동거의향	동거	203(80.2)	86(76.8)	117(83.0)	$\chi^2 = 1.51$ n.s.
	비동거	50(19.8)	26(23.2)	24(17.0)	
학생이 자신의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	동거	44(17.3)	21(18.8)	23(16.1)	$\chi^2 = 3.1$ n.s.
	비동거	211(82.7)	91(81.3)	120(83.9)	

*동거대상 자녀로 아들과 동거하겠다 10명, 딸과 동거하겠다 17명, 경제적 여유 있는 자녀와 동거하겠다 17명인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이 조사학생들은 6대 계획과제 중 경제와 사망대비계획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건강관리, 여가, 가족관계, 주거대비 계획을 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정신적·신체적인 약화의 이유로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주거대비계획에 대해서는 그 인식비율이 31.4%이었다.

2) 가족관계 계획과제

1) 부모 및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식

조사 학생의 80.2%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학생의 82.7%는 자신의 노후에는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 된 후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거의향 비율이 17.3%로 낮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생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 자녀와의 동거보다 노인이 부부나 노인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30대이상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높았다(조남규 2004). 노후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

고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다(김순연 2003). 그리고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고 부부 또는 혼자생활을 희망하였다(김유정 2003)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같은 결과이다.

2) 부모·자녀 동거 시 불편한 이유

학생 자신이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비율이 낮았다(표 6). 노인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즉, 부모·자녀의 동거 시 불편한 점을 파악한 결과(표 7),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가 응답 학생의 44.9%(1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가 18.7%(46명)로 나타났으며, '간섭을 받을 것 같아서'가 18.4%(45명), '생활 방식이 달라서' 9.6%(24명)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배우자에게 미안할 것 같다.', '부모님께 나도 모르게 상처를 드릴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외국 나가서 살면 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듯', '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것 같다.', '경제적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 보다 제약이 있을 듯하다.'로 조사되었다. 청장년층 및 30대-50대층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 노부모와 '생활의 불편함'으로 별거를 선호하였다(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표 7〉 부모·자녀 동거 시 불편한 이유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46(18.3)	18(16.4)	28(19.9)
생활 방식이 달라서	24(9.6)	7(6.4)	17(12.1)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110(43.8)	52(47.3)	58(41.1)
간섭을 받을 것 같아서	45(17.9)	25(22.7)	20(14.2)
함께 살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음	20(8.0)	3(2.7)	17(12.1)
기 타	6(2.4)	5(4.5)	1(0.7)
계	251(100.0)	110(100.0)	141(100.0)

3) 경제대비 계획과제

노후의 경제적 대비 즉, 사회생활에서의 은퇴 후 경제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겠는지 대한 물음에서 장기 저축이 51.0%(1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연금 42.4%(108명), 노후보장보험 41.2%(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부동산 임대 27.1%(69명), 증권의 투자 11.0%(28명), 자녀의 도움 1.2%(3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계속 경제활동을 유지할 것이고, 땅에 대한 투기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나, 재테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30~50대의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저축을 선호한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보험금, 퇴직금을 선호하였다(김경애 2004; 김순연 2003; 김유정 2003). 이는 청소년층의 조사결과와 같은 것이었다.

〈표 8〉 경제적 대비책 인식 비율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공 적 연 금	108(47.5)	48(49.0)	60(46.3)
노후보장보험	105(46.2)	36(36.7)	69(53.3)
장 기 저 축	130(57.1)	55(56.1)	75(57.9)
부동산 임대	69(30.3)	35(35.7)	34(26.3)
증권의 투자	28(12.3)	16(16.3)	12(9.3)
자녀의 도움	3(1.3)	3(3.1)	-
기 타	12(5.3)	3(3.1)	9(6.9)
계	455(200)	196(200)	259(200)

4) 취미 및 여가에 대한 계획과제

노후 취미 및 여가생활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 조사학생들의 가장 높은 인식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으로 52.5%(134명)이었고, 다음으로 예술 활동을 노후 여가생활에 하겠다는 것이 21.6%(55명)과 연극 및 영화감상이 18.4%(47명)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으로 취미 및 여가생활을 보내겠다는 것이 16.5%(42명), 독서 16.1%(41명) 및 봉사활동 14.5%(37명)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노후 취미 및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인식비율이 더 높은 취미 및 여가활동 계획은 컴퓨터 사용(남학생=24.1%, 여학생 10.5%), 운동 및 등산, 산책(남학생=21.4%, 여학생= 5.6%)으로 파악되었다. 여학생의 인식비율이 더 높은 활동으로는 여행(여학생

=59.4%, 남학생=43.8%), 예술활동(여학생=25.9%, 남학생=12.5%), 연극 및 영화감상(여학생=23.1%, 남학생=12.5%), 봉사활동(여학생=21.0%, 남학생=6.3%)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취미 및 여가생활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경우는 친구나 친지방문, 봉사활동, 집안일, 운동 및 등산, 여행(박성효 2004)을 선호하였고, 30~50대는 스포츠 및 등산을 선호하였으며(김순연 2003), 이는 본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표 9〉 노후 취미 및 여가활동 인식비율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봉사활동	37(14.5)	7(6.3)	30(21.0)
종교생활	18(7.1)	7(6.3)	11(7.7)
집 안 일	3(1.2)	0(0.0)	3(2.1)
친구나 친지 모임	16(6.3)	8(7.1)	8(5.6)
여 행	134(52.5)	49(43.8)	85(59.4)
운동 및 등산, 산책	32(12.5)	24(21.4)	8(5.6)
예술 활동	55(21.6)	18(16.1)	37(25.9)
독 서	41(16.1)	20(17.9)	21(14.7)
연극 및 영화감상	47(18.4)	14(12.5)	33(23.1)
컴퓨터 사용	42(16.5)	27(24.1)	15(10.5)

3. 노년기 주거 계획에 대한 인식

1) 노인을 위한 주거에 대한 인식도

조사대상자인 학생들은 대부분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일부 교과서에서 노년기의 주생활 설계로 자녀와 동거에 대한 계획, 주거규모 축소 계획, 안전사고 방지 시설 필요 등의 생활 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주거공간에 대한 언급으로 살던 집을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조하거나 노인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의료시설 등이 겸비된 유료 양로원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으로 이미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주거설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노인을 위한 주거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실버타운	218(85.5)	87(77.7)	131(91.6)
요양원	214(83.9)	84(75.0)	130(90.9)
양로원	232(91.0)	101(90.2)	131(91.6)
노인을 위한 주거를 들어본 적 없다.	3(1.2)	2(1.8)	1(0.7)

조사학생들의 대부분이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념의 양로원 91.0%(232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유료노인주택 개념의 실버타운을 85.5%(218명), 노인의료복지시설 개념의 요양원을 83.9%(214명)가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유료노인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30~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결과 노인을 위한 주거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 응답자는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실버타운을 인지하고 있었다(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또 40~50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에 계획된 주거시설로의 이사계획을 갖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었다(김유정 2003). 그리고 50대이상 층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공동생활주택 입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유병선, 홍형욱 2005).

2) 주거생활의식

노인이 되었을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로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표 11〉 노년기 주거생활의식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노인이 되었을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	살던 집	208(81.9)	92(82.1)	$\chi^2 = .06$ n.s.
	노인전용주거단지	22(8.7)	10(8.9)	
	잘 모르겠다.	24(9.4)	10(8.9)	
집에 대한 해결주체	본인	161(63.1)	76(67.9)	$\chi^2 = 6.69$ n.s.
	국가	77(30.2)	26(23.2)	
	지역사회	7(2.7)	3(2.7)	
	자녀	10(3.9)	7(6.3)	3(2.1)

81.9%(208명)로 나타났고,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전용주거단지를 주거로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8.7%(22명)이었다. 50세 이상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노년기 주거 계획 의식 역시 노후에 선호하는 생활형태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에서 자녀와 동거 하겠다’가 많았고, ‘자녀 주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였고(박성효 2004), 이는 조사대상 학생들과 비슷한 결과이었다.

노후 집에 대한 문제 해결을 누가해야하는지 학생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3.1%(161명)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의 주거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으로 생각하여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0.2%(77명)로 조사되었다. 또 자녀가 노인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9%(10명),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는 2.8%(7명)로 조사되었다. 30~60대층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정부 및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인식하였다(김경애 2004; 안명숙 2004; 조남규 2004).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조사대상 학생들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3) 주거에 대한 선호의식

(1) 주택유형

청소년의 미래 노후 주거생활을 대비하여 어떠한 주거형태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71.3%(181명)으로 조사되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28.7%(73명)로 조사되어, 노후에 주거형태계획 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남녀학생에 따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

〈표 12〉 남녀학생별 선호하는 노년기 주택유형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주택유형	단독주택	83(74.8)	98(68.5)	$\chi^2 = .48$ n.s.
	공동주택	28(25.2)	45(31.5)	

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74.8%, 83명)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공동주택(31.5%, 45명)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다(표 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형태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표 4)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30~60대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도 단독주택을 선호하였거나, 전원주택을 선호하였다(김유정 2003; 박성효 2004; 안명숙 2004; 김순연 2003).

(2) 거주지 조건

거주지 조건에 대한 문항에서는 '주변생활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전체학생의 35.4%(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24.4%(62명)로, '자녀·친구·친척이 사는 거리가 가까운 곳'을 거주지 조건으로 선호하는 경우는 21.7%(55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곳'과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우는 각각 10.2%(26명), 8.3%(21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변생활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남학생(29.7%)에 비하여 여학생(39.9%)의 선호가 더 높았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미래 노년기에 살 거주지로 도시적 지원기능에서 벗어난 산이나 바다가 가까

운 곳보다 교통, 의료,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노인으로써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거주지를 가장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60대를 조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주거지 조건으로 '주변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장 선호하였고 '대중교통과 편리성',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호하였다(김순연 2003; 유병선, 홍형욱 2005).

(3) 주거의 위치

주거의 위치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5.2%(114명)가 전원휴양지역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뒤로는 42.1%(106명)이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도심지내보다 도시를 벗어난 전원휴양지역과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노년기 주거의 위치는 도심 속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전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하였고, 도시와 도시근교를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30~60대를 조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위치적으로 단독주택에 살 경우는 도시근교(교외)부근을 아파트에 살 경우는 도심지를 선호하였고(김유정 2003), 그 외 도시근교와 전원휴양지(안명숙 2004) 및 해양 전원휴양지를 선호(56.6%)하였다(김경애 2004).

〈표 13〉 남녀학생별 선호하는 거주지 조건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거주지 조건	교통이 편리한 곳	12(10.8)	14(9.8)	$\chi^2 = 6.44$ n.s.
	주변생활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33(29.7)	57(39.9)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	9(8.1)	12(8.4)	
	자녀·친구·친척이 사는 거리가 가까운 곳	24(21.6)	31(21.7)	
	산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	33(29.7)	29(20.3)	

〈표 14〉 남녀학생별 선호하는 주거 위치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주거의 위치	도심지내	27(10.7)	15(13.6)	$\chi^2 = 2.16$ n.s.
	도시근교	106(42.1)	46(41.8)	
	전원휴양지역	114(45.2)	45(40.9)	
	기 타	5(2.0)	4(3.6)	

(4) 주거공간

노후에 생활 할 주거공간 구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한 결과〈표 15〉, 전체 응답학생의 64.5%(160명)가 방 2개와 LDK형의 공간구성을 선택하였고, 방 1개와 LDK형은 18.5%(46명), 원룸형은 11.8%(30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의 공간구성에 관한 의견(4.8%)으로는 방 여러 개, 방 100개, 방 3개 + LDK형, 방 3개 독립 + LDK형, 방 4개, 방 5개 + LDK형, 방 5개 독립 + LDK형, 자식들이 놀러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큰 집, 전원주택, 펜션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노년기 주거는 거주공간의 축소계획으로 방의 개수를 줄이고 노인을 배려해 동선이 최소화 되는 부엌과 식사실과 거실을 합한 LDK형의 공간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 15〉의 조사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동선이 가장 짧은 원룸형에 대한 선호보다는 생활공간에서 방2개와 LDK형 구성을 선호하였다. 30~60대의 연령층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2인 1실의 방을 선호하거나(김순연 2003), 원룸형을 선호하여(홍형욱, 지은영 2004) 조사대상 학생들과 비교 시 학생들의 노년기 주거공간 구성 계획에서 방의 개수를 더 필요로 하였다.

(5) 살고 싶은 이웃

학생들에게 노인이 되었을 때 함께 살고 싶은 이웃을 조사한 결과〈표 16〉, 전체 응답학생 중 친구를 이웃으

로 선호하는 경우가 52.0%(13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7%(55명)의 학생이 취미가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선호하였고, 15.0%(38명)은 자녀 및 친척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의 종교가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3.9%(10명)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3.5%(9명))으로는 다양한 이웃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친구·종교·취미 등이 같은 사람과 이웃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견, 이웃이 누가되던 아무 상관없다는 의견, 친한 친구이면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년층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이 되어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웃으로 종교가 같은 사람, 친목활동, 경제수준 직업이 비슷한 사람으로 지적하였으나(김영혜 2002), 청소년은 노년기에 선호하는 이웃으로 ‘친구’를 선호하여 차이가 있었다.

4.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의식

1) 노인전용주거의 거주 이유

노후 주거의식〈표 11〉의 조사결과에서 노인전용주거 단지에 거주하겠다는 학생과 노인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지만,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의식을 언급한 학생 46명을 중심으로 노인전용주거에 거주하려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전용주거에 살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편

〈표 15〉 남녀학생별 선호하는 주거공간 구성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주거 공간	방과 LDK*가 결합된 원룸형	30(12.1)	7(6.5)	$\chi^2 = 6.76$ n.s.
	방1개와 LDK형	46(18.5)	24(22.2)	
	방2개와 LDK형	160(64.5)	70(64.8)	
	기 타	12(4.8)	7(6.5)	

*LDK란 거실(Livingroom), 식당(Diningroom), 부엌(Kitchen)

〈표 16〉 살고 싶은 이웃에 대한 선호 의식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χ^2 검증
전 구	132(52.0)	58(52.3)	84(58.7)	$\chi^2 = 2.30$ n.s.
자녀 및 친척	38(15.0)	15(13.5)	23(16.1)	
종교가 같은 사람	10(3.9)	5(4.5)	5(3.5)	
취미가 같은 사람	55(21.7)	28(25.2)	27(18.9)	
기 타	9(3.5)	5(4.5)	4(2.8)	

〈표 17〉 노인전용주거단지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편리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15(33.3)	4(22.2)	11(40.7)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7(15.6)	4(22.2)	3(11.1)
일상의 보살핌과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2(26.7)	5(27.8)	7(25.9)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11(24.4)	5(27.8)	6(22.2)
계	45(100.0)	18(100.0)	27(100.0)

리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33.3%(15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상의 보살핌과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6.7%(12명)로 조사되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24.4%(11명),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15.6%(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를 남녀 학생에 따라 비교해 보면,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 전용주거단지에 살려는 비율이 남학생(22.2%)에 비해 여학생(40.7%)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노인전용주거단지에 살려는 것은 여학생(11.1%)에 비해 남학생(22.2%)의 비율이 높았다.

35~60세를 대상으로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려는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이 필요할 때 입주하겠다' 라고 하였고(조남규 2004), 공무원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는 '건강이 나빠져 누군가의 부양이 필요할 때 입주하겠다'(김옥만 2004)라고 하여 청소년층 보다 성인층에서 건강과 주거를 함께 생각하였다.

2) 노인전용주거 입주연령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살기 시작해도 괜찮은 연령에 대한 조사결과(표 18), 66~70세가 28.3%(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76~80세가 23.9%(11명), 65세 이하 21.8%(10명), 81세 이상 17.4%(8명)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66~70세의 연령 범

위는 정년 이후의 시기였다. 30~50대를 대상으로한 선행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입주시기로는 66~70세 정도를 제시하였고(김순연 2003), 본 연구의 청소년층 조사대상과 같은 결과이었다.

〈표 18〉 노인전용주거의 입주연령

단위: 빈도(%)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65세 이하	10(21.8)	8(42.1)	2(7.4)
66~70세	13(28.3)	3(15.8)	10(37.0)
71~75세	4(8.7)	2(10.5)	2(7.4)
76~80세	11(23.9)	3(15.8)	8(29.6)
81세 이상	8(17.4)	3(15.8)	5(18.5)
계	46(100.0)	19(100.0)	27(100.0)

3) 노인전용주거의 입주시점

청소년이 미래의 노후에 어떤 경우 노인전용주거에 입주하려는 의식이 생기는지에 관한 질문에 특히 신체적 이유로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부양이 필요할 때가 22.7%(10명)이 나온 반면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정신적 건강의 쇠약으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43.2%(19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는 노인전용주거에 입주하는 상황은 외로움에 따른 상황 시에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0.5%(9명) 자녀를 모두 결혼시

〈표 19〉 노인전용주거의 입주시점

구 분	계	단위: 빈도(%)	
		남학생	여학생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후	6(13.6)	4(22.2)	2(7.7)
건강이 나빠져 부양이 필요할 때	10(22.7)	4(22.2)	6(23.1)
배우자가 사망 후에	9(20.5)	4(22.2)	5(19.2)
연령이 많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19(43.2)	6(33.3)	13(50.0)
계	44(100.0)	18(100.0)	26(100.0)

킨 후 13.6%(6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많아 고독감을 느낄 때의 비율이 13.6%(6명)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른 이유의 비율은 9.1%(4명)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역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29.5%(13명)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나빠져 부양이 필요할 때 13.6%(6명) 배우자 사망 후에 11.4%(5명)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후 4.5%(2명)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35~60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입주시점 역시 연령이 많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시설 입주를 고려하겠다고 조사되어(조남규 2004) 청소년층과 같은 조사 결과이었다.

4) 노인전용주거 거주 시 비용 부담방식

노인전용주거에서 살게 될 경우 비용 부담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20), 전세임대형이 60.9%(28명), 중신형이 28.3%(13명), 월임대형이 10.9%(5명)로 조사되었다. 30~60대층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역시 노인주거시설 거주 시의 비용 부담방식으로 임대형을 높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석 2004; 박성효 2004)

〈표 20〉 노인전용주거 거주 시 비용 부담방식

단위: 빈도(%)

구 분	계	남학생	여학생	x ² 검증 n.s.
중신형	13(28.3)	6(31.6)	7(25.9)	
전세임대형	28(60.9)	11(57.9)	17(63.0)	
월임대형	5(10.9)	2(10.5)	3(11.1)	
계	46(100.0)	19(100.0)	27(100.0)	

5) 노인전용주거의 서비스 공간 필요도

노후에 노인전용주거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원

하는 공간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대부분의 공간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고 그 중에서도 의료시설에 대해 가장 높은 필요도 4.67점(.56)이고, 다음으로 공원시설의 필요도가 4.56점(.62)이고, 운동시설의 필요도가 4.56점(.69)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미 공간, 교육 및 문화 공간, 편의 공간, 쇼핑 공간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역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0~6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역시 본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전용주거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로는 복합 주거공간(의료시설 및 노인전용시설, 가족시설, 여가시설, 지역 문화공간)(김경애 2004), 의료시설(김옥만 2004)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표 21〉 노인전용주거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간 필요도 (N=254)

원하는 공간	계 M(SD)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편의공간	4.22(.80)	4.26(.73)	4.19(.85)	.29
교육 및 문화공간	4.38(.72)	4.37(.68)	4.38(.75)	-.07
운동공간	4.56(.69)	4.42(.84)	4.65(.56)	-1.05
취미공간	4.40(.79)	4.42(.69)	4.38(.88)	.18
공원시설	4.56(.62)	4.53(.70)	4.58(.58)	-.26
쇼핑공간	4.13(.82)	4.16(.96)	4.12(.71)	.16
의료시설	4.67(.56)	4.53(.70)	4.77(.43)	-1.34

5. 노인을 배려한 주거계획요소의 필요도

1) 안전성

안전성과 관련된 주거계획요소로는 긴급통보장치, 생활 곳곳의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주거계획요소에 비해 높은 필요도가 나타났다. 긴급 통보장치에 대한 필요도는 4.55점(.60) 생활 곳곳의 안전장치 4.54점

〈표 22〉 주거계획요소(안전)의 필요도

(N=254)

안전관련사항	계 M(SD)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긴급통보장치	4.55(.60)	4.48(.63)	4.63(.55)	-1.91*
생활 곳곳의 안전장치	4.54(.63)	4.44(.72)	4.62(.56)	-2.11*

*P<.05

(.63)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호받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에 대한 요구도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필요도를 비교해보면 통계적 유의성 검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필요도를 요하는 주거계획요소로 긴급통보장치(남학생=4.48점, 여학생=4.63점), 생활 곳곳의 안전장치(남학생=4.44점, 여학생=4.62점)이었다. 여학생이 주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필요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표 22).

만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에서 구체적인 주거환경 내용에서는 ‘비상벨 설치(3.79점)’, ‘미끄럼 방지 바닥재로(4.01점)’,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3.69점)’, ‘욕조 안전손잡이 설치(3.68점)’ 을 요구도로 조사되었는데(문희정 2003), 이는 조사대상 학생들보다 낮은 필요도 평균으로 조사되었다.

2) 시설·설비

편리한 시설·설비와 관련된 주거계획요소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턱이 없는 넓은 문,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샤워시설, 욕조,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 설비의 5가지이다. 가장 높은 필요도로 나타난 계획요소는 노인에게 알맞은 샤워시설 및 입·출욕이 용이한 욕조로 4.34점(.84)이었다.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에 대한 필요도는

4.28점(.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에 대한 필요도는 전체 계획요소 중 가장 낮은 필요도인 3.95점(.87)으로 나타나 노인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골절에 대한 대비까지는 필요도를 비교적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편리한 시설·설비에 대한 필요도를 비교해보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필요도를 요하는 주거계획요소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남학생=3.89점, 여학생=4.11점), 턱이 없는 넓은 문(남학생=3.95점, 여학생=4.25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남학생=4.25, 여학생=4.35), 샤워시설, 욕조(남학생=4.25점, 여학생=4.47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설비(남학생=4.07점, 여학생=4.30점)이었다. 여학생이 주거의 편리한 시설·설비에 대해 더 높은 필요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만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보다 청소년이 더 높은 필요도를 요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주거환경내용에는 ‘집안 내 불필요한 단차나 경사제거(3.69점)’, ‘보다 넓은 공간(3.30점)’, ‘부엌작업대 높이조절(3.53점)’의 요구도로 파악되었다(문희정 2003).

〈표 23〉 주거계획요소(시설·설비)의 필요도

(N=254)

편리한 시설·설비	계 M(SD)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3.95(.87)	3.89(.92)	4.11(.82)	-1.99*
턱이 없는 넓은 문	4.07(.82)	3.95(.90)	4.25(.74)	-2.84**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4.28(.73)	4.25(.71)	4.35(.74)	-1.05
샤워시설, 욕조	4.34(.84)	4.25(.86)	4.47(.73)	-2.11*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 설비	4.19(.79)	4.07(.87)	4.30(.69)	-2.32*

*P<.05 **P<.01

〈표 24〉 주거계획요소(실내환경)의 필요도

(N=254)

실내 환경	계 M(SD)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냉난방 시설 및 적절한 온도	4.60(.59)	4.47(.69)	4.64(.54)	-2.19*
노인에게 맞는 밝은 빛 환경	4.37(.72)	4.33(.75)	4.46(.64)	-1.42
깨끗한 실내공기환경	4.57(.65)	4.48(.72)	4.65(.57)	-2.05*
조용하고 소음 발생이 적은 실내환경	4.35(.74)	4.37(.70)	4.31(.79)	.65

*P<.05

3) 실내 환경

실내 환경과 관련된 계획요소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에서 각각 해당하는 요소를 적용하여 냉난방 시설 및 적절한 온도, 노인에게 맞는 밝은 빛환경, 깨끗한 실내공기환경, 조용하고 소음 발생이 적은 실내 환경을 계획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요소 중 냉난방 시설 및 적절한 온도에 관한 필요도가 4.60점(.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깨끗한 실내공기환경 4.57점(.65)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간 및 활동에 대한 필요도를 비교해보면 냉난방 시설 및 적절한 온도와 깨끗한 실내공기환경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되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은 필요도를 요하는 주거 계획요소로 조용하고 소음 발생이 적은 실내 환경(남학생=4.37점, 여학생=4.31점)이었고, 나머지 실내 환경에 대한 계획요소는 여학생이 주거에 대한 더 높은 필요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선행연구 조사결과 '난방 및 습도조절 시설 계획(3.64점)', '충분한 조명(3.57점)', '욕실의 조명(3.52점)', '방음시설(3.53점)'을 요구하였다(문희정 2003). 이는 앞서 청소년층의 조사결과에 비해 낮은 필요도 점수이었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면에서 계획 요소는 주거관리가 용이하고 저렴한 관리비, 청소하기 쉬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소별 필요도는 주거관리가 용이하고 저렴한 관리비에 대한 필요도는 4.28점(.84) 청소하기 쉬운 환경에 대한 필요도는 4.23점(.8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도를 비교해보면 주거계획요소 중 관리비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검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지관리에 대한

더 높은 필요도를 요구해 주거계획요소로 관리비(남학생=4.16점, 여학생=4.39점), 청소하기 쉬운 환경(남학생=4.23점, 여학생=4.29점)이었다. 여학생이 주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 더 높은 필요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주거계획요소(유지관리)의 필요도

(N=254)

유지관리	계 M(SD)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주거관리가 용이하고 저렴한 관리비	4.28(.84)	4.16(.84)	4.39(.76)	-2.23*
청소하기 쉬운 환경	4.23(.85)	4.23(.80)	4.29(.85)	-.49

*P<.05

5) 주거계획요소의 필요도 종합

주거계획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정성측면에 대해 4.55점(.53)으로 가장 높은 필요도로 나타났다. 실내 환경에 대한 필요성은 4.47점(.54) 유지관리 4.28점(.73) 편리한 시설·설비 4.20점(.63)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거계획에 대한 필요도를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안전성과 편리한 시설·설비에 대한 요소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표 26〉 주거계획요소의 필요도 종합

(N=254)

주거계획요소	계	남	여	t값
안 전 성	4.55(.53)	4.46(.58)	4.62(.48)	-2.37*
편리한 시설·설비	4.20(.63)	4.09(.65)	4.29(.59)	-2.55*
실내 환경	4.47(.54)	4.41(.59)	4.52(.49)	-1.51
유지관리	4.28(.73)	4.20(.75)	4.35(.70)	-1.64

*P<.05

V. 결 론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생각하는 노년기 생활계획에 대한 인식 중 건강대비계획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계획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동거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자녀와의 비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청소년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년기를 언급한 교과서 교육내용과 동일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생활계획과제에 대한 청소년기의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노년기 주거계획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노인전용주거의 입주보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버타운, 요양원, 양로원과 같은 노인 주거시설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년기 주거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고, 단독주택형의 노인주거를 선호하였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며 도시근교나 전원휴양지역의 거주를 선호하였다. 또한 친구와 함께 살고 싶어 했으며, 방2개+LDK형의 공간구성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전용주거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노인주거시설의 종류를 인식하고 있고 노년기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미래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주거의 방향을 교과과정에서 다룸으로써, 청소년기부터 노년기 주거에 대한 간접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전용주거 입주의사는 낮았지만, 조사학생들은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령이 많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66-70세의 연령시기 즈음에 노인전용주거에 입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세 임대형으로 거주를 선호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료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전용주거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교과과정에서도 노년기 주거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고품화

추세를 볼 때 노년기 주거계획과 관련하여 기술가정 교과내용에서도 복지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노인전용주거의 형태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청소년의 노인을 배려한 주거계획 요소의 필요도는 조사결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에서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주거의 계획요소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타일 및 안전바 설치 정도의 단순한 내용만 제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청소년기에 노년기 주생활 계획에 있어서 안전, 시설·설비, 실내환경, 유지관리 차원의 주거계획요소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례제시 학습을 통해 미래의 노년기 주거에 대한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참 고 문 헌

- 1)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기술·가정)**
- 2) 김경애(2004). 실버타운의 인지도와 요구도에 대한 조사 연구 :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기수, 김삼길, 김순옥, 김현숙, 이병조, 조승호, 황혜영(2005). **고등학교 기술·가정**. 지학사
- 4) 김미련(2001). 노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순경, 김종인(1986). **청소년의 주거의식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 개인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태도를 중심으로**. 8(3)
- 6) 김순연(2003).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예비노인층의 욕구와 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영혜(2002). 중년층의 노인주거형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옥만(2004). 노인주거복지시설 선호도에 관한연구 :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유정(2003). 서울시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현석(2004).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비노인층의

- 선호특성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문희정(2003).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박성효(2004). 노인주거복지시설 선호도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신용해, 조재순. (1999).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녀 고등학생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1(1): 47-57
- 13) 안명숙(2004). 노인부양의식과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서울, 수원, 천안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유병선, 홍형욱(2005).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의사 결정요인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16(2): 99-105
- 15) 이강분, 최목화(1994).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6(2): 59-71
- 16) 조남규(2004).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18) 홍형욱, 지은영(2003).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지역별 견해 비교 : 서울경기도부산광주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
- 19) Cohen, U., Weisman, G.(1991). *Designing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ementia, Holding on to home*.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20) Altman, I., Lawton, M. P., Wohlwill, J. F.(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7. New York: Plenum Press
- 21) <http://www.nso.go.kr>
- 22) <http://www.kig.or.kr>